

<b>미리보기</b>	<b>3 대학</b> - 1980, 조대신문의 발자취	<b>5 사회</b> - 대학생들에게 대출이란	<b>7 조대인을 만나다</b> - 뽕족이의 탄생 '리플리히'	<b>9 르포</b> - 5·18자유공원 투어 일지
-------------	----------------------------------	------------------------------	---------------------------------------	---------------------------------

## 우리 대학, 2년만의 교내 행사 재개

### 총학, 여름 중 대학의 꽃 '축제' 기획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금, 문화의 장이 펼쳐지는 기세에 많은 학우들의 기대를 사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달 4일에 법사회대학, 12일에는 경상대학에서 체육대회를 주최했다. 2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단과대학 행사를 즐기며 많은 학우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우리 대학 노화양(경제·18) 학우는 "수업을

통해서만 교류했던 학우들과 색다른 방향으로 친해질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며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즐기지 못했던 대학 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일괄 취소됐던 MT 또한 이달을 기점으로 재개되며 학우들의 대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장미주간이 개최된다. 미술대학의 작품 전시회와 21과 22일에는 우리 대학 후문에서 플라마켓을 진행하며 장미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 힘쓴다. 한편 플라마켓은 ▲장미의 거리 상인회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한다. 이 외에도 네임데이(야구경기

관람)가 기획 예정이며, 6월 28일에는 국토대장정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축제를 경험했던 이지환(컴퓨터공학·16) 학우는 과거에 축제 주막을 운영하며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다양한 초대가수들과 타 학교의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의 장이 마련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축제 기획 및 집행은 1학기 종강 후에 진행될 것 같다"며 "모든 학우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 정치외교학과 조교,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여

지난 4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한 조교가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7 조교가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시험 감독으로 활동했을 당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놨고, 익명의 게시자가 저장한 동영상을 에타에 링크하며 그 조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조교가 어느 학과의 조교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는 댓글을 통해 금세 알려졌다. 이어진 댓글에서 그 조교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도 이뤄졌다. 이후 학우들의 폭로성 댓글이 이어지며 해당 조교는 두 번에 걸쳐 에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2학기까지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연구조교로 활동했을 당시 있었던 경험담처럼 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각색한 이야기를 방송 재미를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고, 연구조교 당시 우연히 알게 된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이야기하거나 여학우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적 발언을 하는 등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우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11일 정치외교학과

**익명**  
05/04 17:56

**조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 해도 되는거임?**

조교가 트ㅇㅈ에서 방송하던데 부정행위 저ㄴ당당하게 이야기함 영상이 다 안올라가서 찢라서 올렸는데 유튜브에 4분 정도 영상 있음

영상 세줄요약  
1. 조교가 시험감독하다가 아는 애들한테 답 이거 맞냐고 말하고 지나가고 이거 아니다(바로 정정함 근데 판단에 맡길게),답이 점점 돌아간다고 함  
2. 어쨌든 교수님한테 말하면 애들은 재시험보고 조교는 감독 안해서 좋다함  
3. 이거맞음?

나도 그럼 공부 안하고 조교랑 친해졌지 저ㄴ어이없네  
판단은 영상 보고 맡길게

<https://youtu.be/nx5K7naGZT8>

0:22



0:04



0:07



118 공감 80 스크랩 19

**익명17 BEST**

저 조교 안그래도 신입생한테 찍적대는걸로 학과에서 유명한데;; 심지어 조교 권한 남용해서 애들 모르게 성적 조회해서 다른 애들이랑 보면서 욕하고 다니고;;; 저ㄴ 악질임;;

▲지난 4일 한 조교가 개인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이를 캡처한 동영상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링크되며 해당 조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는 교수회의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교가 아닌 교수가 직접 시험 감독을 맡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해당 조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학생회를 통해 피해를 본 학우들이 이 문제의 공론화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먼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보육역량 강화해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창업보육센터 건물 외관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2년 창업보육센터(BI)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BI 경영평가는 매년 창업보육센터의 전년도 경영실적과 성과 등을 점검하는 평가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경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특히 ▲평가대상 연도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인력운영실적 ▲외부 기관 협업사례 ▲홍보실적 등의 정량·정성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999년 6월 개소한 이후 우수한 기술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 사

업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술, 마케팅, 세무, 특허,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센터 자체 맞춤형 보육지원 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준필 창업보육센터장은 "자립형 혁신 창업보육센터"라는 비전을 가치로 기업지원 및 센터 운영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역량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시대 창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미디어센터 제공

# 공연무용예술과 교원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 열려

올해 초, 우리 대학은 무용과 임용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과 공개 강의 심사 직전에 평가 방식을 바꾼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우리 대학 해오름관에서 교수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조선대학교 공연무용예술과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 대책 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공연예술무용과 정상화를 바라는 졸업생 모임이 연대해 마련됐다. 기자회견 당시 해오름관에서는 개교 76주년 기념 제4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연무용예술과 교원임용 심사과정의 불공정과 금품 상납, 논문 등을 규탄했다. 공연무용예술과 시간



▲지난달 30일, 해오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강사였던 7 씨는 2020년 한국무용과 교수임용 공채에서 공연무용예술과 교수 2이 발전자금 3억~5억을 현금으로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5일 뒤 공채채용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대학과 총장에게 '2022학년도 1학기 공연예술무

용과 교원채용 심사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실시와 책임자 징계',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은 지

원자들에게 사과문 게시',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임용 비리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실시', '2012학년도 공연예술무용과 정시전형에서 자녀를 무용과에 입학시킨 의혹을 받는 A교수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대책위와 학생 대표단의 면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우리 대학 교수들의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교원인사팀은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채용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소송 제기에는 법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 우리 대학 헌혈의집, 22년의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나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20~22명, 우리 대학 헌혈의집 수혈자 부족

지난 1999년부터 약 22년간 우리 대학 미술대학 옆에 자리했던 헌혈의집이 오는 7월 이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의집 방문자들이 줄어들면서, 결국 오는 7월 중 대학 내 시설이 첨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센터'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헌혈의집이 350일 운영하는 광주의 다른 5개 지점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일이 크게 줄어든 것도 크다.

또한, 우리 대학 헌혈의집은 대학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현저히 적다. 특히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증가로 인해 수혈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우리 대학 헌혈의집 관계자에 따르면,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20~22명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꾸준히 방문객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혈액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난 3, 4월 혈액 부족 관련 뉴스 보도 이후 교회, 소방서 등에서 단체 헌혈을 해 위기 단계는 벗어나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하



게 됐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수혈자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7일분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혈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 그렇기에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헌혈의집 관계자는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 나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 누군가는 또 따뜻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학우분들께서 자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헌혈의집은 지난 4월 28일 이후부터 목, 금, 토, 일 4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확진자 헌혈 배제 기간이 '격리해제 후 10일'로 단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해제됐기에 우리 대학 헌혈의집도 7월 이전에 많은 학우들이 방문해 대학 내 헌혈의집이 계속 존속되길 기대해본다.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 우리 대학,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최종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공유·협업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기술혁신 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 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선정했다.

우리 대학은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돼 올해부터 6년간 2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 'LINC'사업 1단계 선정 이후 지난 2017년 2단계 'LINC+'사업, 올해 3단계 'LINC 3.0' 사업 선정을 통해 산학협력력의 고속화 및 공

유협업 체계의 혁신을 만들어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은 산학연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 동반 상승효과 창출, 산업계 및 지역 기업과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 수요 등에 적극 소통할 계획으로 'LINC 3.0'의 활약에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김춘성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 대학은 앞으로 지역의 교육·연구·기술 공유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및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체계 구축에 힘써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수습기자  
zlwm0726@hanmail.net

신규 기자단

# 1980년 당시의 조대신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 언론 탄압에도 꺾을 수 없었던 기자정신



▲ 학생기자들이 제작한 공식지령에서 제외된 조대신문 제379호(좌)와 '조대학보'라는 제호로 발행된 제379호(우) 당시 신문

▲ 학교 측의 언론 탄압 및 각종 만행으로 신문 발행체제가 무너지자 조대신문 기자들은 지난 1983년 6월 별지의 신문, 이른바 '지하신문' 제작에까지 나섰다.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 신문, 방송 등의 기성 언론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기성 언론조차 막대한 탄압으로 인해 진실을 알리지 못할 때 대학 언론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날 우리 대학의 언론사인 조대신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1980년대 광주를 알리려 했는지 알아보려고 조대신문의 195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록이 담긴 <조대신문사·조대신문 50년사 편찬위원회>를 살펴봤다.

### 침묵을 강요당한 조대신문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총장에서 명예총장으로 물러난 박철웅 전 총장은 우리 대학을 개인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대신문은 조대학보로 제호가 바뀌게 되고, 지면은 박철웅 전 총장의 홍보물 역할을 맡게 됐다.

1979학년도 학위수여식 특집으로 지면이 채워진 1980년 2월 21자(제375호와 376호의 통합 호) 신문 3면에는 박 총장의 설립정신이 흰 눈에 쌓인 본관의 건물과 함께 전면이 할애되고 있으며 4, 5, 6면에는 졸업 기념 화보로 채워져 있다.

3월 1일 자(제377호)부터는 10여 년간 조대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이종출 교수가 세종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며 채경석(법정대 행정학)교수가 편집국장으로 취임하고 학생 편집장은 최초 여기자로서 정희욱이 임명됐다.

그러나 학원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일방적인 휴강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신문 발행이 중단돼 개강일인 4월 14일에서야 제378호를 제작하게 됐다. 이후 조대신문은 공식적으로 4월 14일자 제378호를 발행 후 다시 침묵을 강요당한다.

### 언론자유에 역사를 새긴 조대신문 제379호

학교 당국에서는 사전검열을 통해 제379호 조대신문이 학원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5월 1일 열린 긴급 학처장단회의에서 조대신문 발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당시 전남대일에서 인쇄 직전에 있던 조대신문을 교직원들을 동원해 해판시키는 등 신문발행을 방해했다.

언론 탄압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은 조대신문 학생기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성금을 모아 자체 제작한 조대신문 제397호를 1980년 5월 5일에 발행하는 등 언론자유에 앞장

서고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 신문을 살펴보면 학교 측에서 '조대신문'이라는 제호 동판까지 압수해버렸기에 새로운 동판으로 신문을 제작한다. 제호 밑에는 처음으로 교육이념이 빠지고 '학원소식의 신속한 보도', '대학언론의 창달', '대학문화의 창조'라는 기사들의 평소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1면 헤드라인 기사는 '올부짓는 캠퍼스'라는 제목의 기사로 "휴강조치 철회와 총장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지난 3일 도서관에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외부 폭력배들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실으며 당시의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원편에는 '교수 양심선언, 자율화 운동 전폭 지지'라는 기사가 실려 있고 중앙에는 '총장, 학원자율화 운동을 매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광고란에는 '조대신문사기자일동' 명의로 '5·2 조대신문 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과 결의문을 실고 있다.

1980년 5월 5일자에 발행된 조대신문 제379호를 조대신문의 공식호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기자들의 요구에도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해 공식지령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조대신문 제379호 발행 후 5·18민주화운동 발생으로 학원은 다시 휴강에 들어가고 조대신문은 신문발행이 중단(정간)된 지 1년만인 1981년 5월 5일 '조대학보'라는 제호로 제379호를 발행한다. 이로 인해 학생기자들이 발행했던 조대신문 제379호와 내용이 전혀 다른 신문이 같은 호로 발행돼 제379호 신문이 2개가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후 당시 정희욱 편집국장에게 80년 5월 5일자 379호 조대신문 발행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면직시키고 학교 당국에서 조대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과 탄압이 노골화돼 이에 대응하는 학생기자들의 마찰이 빈번해진다. 대학 언론이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게 심지어는 학생기자들의 제작거부를 빌미로 교직원들을 동원해 조대신문을 배포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로 인해 조대학보는 박 명예총장의 학원 사유화를 위한 개인소유물로 전락하며 발행체제가 무너지고 월간이나 격월간 형태로 발행돼 1983년 한 해 동안 총 7회 발행에 그치게 된다.

### 지하신문 제작에 나선 조대신문 기자들

조대신문 기자들은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 별도의 신문 이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타블로이드 판형의 4면 별지 신문은 1면에 '조대학보, 따로 덧붙여 내면서'라는 당시 홍성종 편집국장의 글이 실리고 이어 2면에는 기자 일동의 '우리들의 입장'이 실린다. 기자들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객관화되지 못한 보도, 보도기사의 미비, 비평기능의 저하, 구문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낙장 보도 등으로 올바른 학내 여론의 반영과 조성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우리 기자는 다시 한번 통감한다"며 기자들의 뜻을 밝혔다. 3면에는 '조대학보에 바란다'라는 글이, 4면에는 황명걸의 '종이여 울려라'는 시와 함께 편집후기가 실려 지하신문이 완성됐다.

지하신문 발행을 빌미로 편집국장과 취재부장, 기획부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 기자 전원이 면직 처분돼 학보사를 떠나게 되면서 조대신문(학보) 사상 한 기수(제28기)가 한꺼번에 전원 면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대학은 1980년 5월 당시와 그 이후 민주화운동에 큰 축을 차지했던 대학 중 한 곳이지만 학교 측의 탄압으로 인해 우리 대학 학보사인 조대신문에는 80년 5월의 광주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제호를 바꾸고 총장의 홍보물로서 작용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등의 갖가지 학교 측의 만행으로 신문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대신문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신문발행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학생기자들만의 힘으로 대학신문을 제작 및 발행하고 더 나아가 지하신문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이와 같이 선배 기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당시의 조대신문을 살펴봤다.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현재에도 많은 기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언론 탄압으로 인해 더욱이 신문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와중에도 이들의 노력으로 그 당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성 언론조차 다루지 못한 80년 광주의 모습을 담아내고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기자정신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언론 탄압에 맞서 민주화와 언론자유에 힘썼던 조대신문 선배 기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마음에 새겨본다.

정상아 기자

ivy9956@naver.com

**! 왈가왈부 !**

## 검찰수사권 조정 논란, 그 입장은?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칭으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검수완박 찬반 대립이 활발한 가운데 조대신문 기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왈가왈부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김슬기 수습기자 dvjhgy@naver.com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면성

현재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란과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큰 시사점이 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허락을 받고 수사 결과를 법원에 기소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사의 권한이 막강해지게 된 것이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면 아무래도 경찰의 명예와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검사들의 부정부패가 많아지며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권력이 높아지게 돼 그에 따른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

정하늘 수습기자 jeongsky1109@naver.com

###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돼야 할 것

검수완박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충돌로 인해 이슈화됐다. 수사는 때에 따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인권 침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늘 뜨거운 이슈였다. 지금까지는 검찰개혁을 앞세웠고 국정 과제로서 지속하는 경향이 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지금까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으나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 법률 규정을 삭제 또는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검사는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나는 이러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중립의견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권한이 경찰에게 가거나, 다른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요점은 누가 됐든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식구 봐주기나 권력에 눈치 보는 행태로 인해 현재 상황까지 문제점이 이어진 것인데, 이게 다른 기관으로 인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수한 생각이 아닌가? 게다가 현재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기에 정치적인 세력 문제로 여겨져 개혁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여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순리에 맞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백어진 수습기자 uhjin0304@naver.com

### 검수완박,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다

검찰개혁 이야기와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입법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며 논쟁이 더 벌어지고 있다.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경찰과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보였다.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니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수사 과정의 지연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결과는 동일해질 수 있다. 또한, 수사라는 것이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기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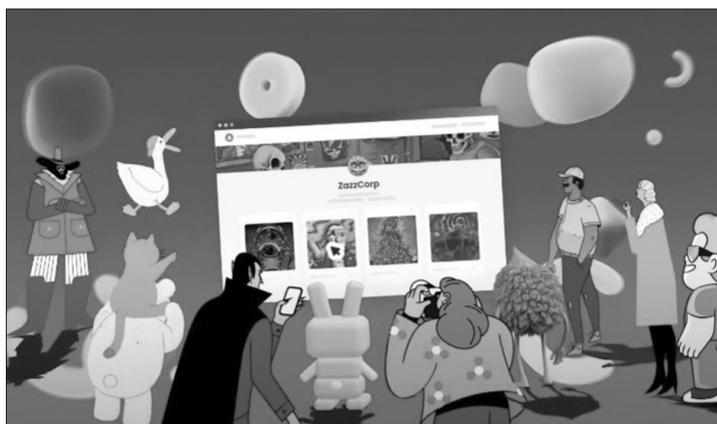
만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런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진다. 검찰 공식 SNS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사건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확인돼도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수완박이 이뤄진다고 정확하게 수사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다.

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시키는 등의 장점도 있다. 또한,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2차 범죄에서 구제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검수완박이 완벽한 답안이 아닌 만큼 국민들에게 더 위협을 보이는 길은 피하는 게 좋다.



김성하의 문화 흐름 읽기

## NFT 바로알기



Open Sea 이미지

▲NFT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오픈씨

NFT를 발행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대체 NFT가 무엇일까?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NFT가 탄생하기 전에는 작품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하기 쉬웠다. 그러나 2010년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원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FT는 한마디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작품에 '원본 확인증'을 형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민팅으로 작품의 블록체인에 작품 이름과 설명, 소유주, 원본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창작물 거래를 가능하게 한 반면, 원본

이 해킹이나 훼손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위험과 NFT의 콘텐츠 가치가 실제로도 원본인지 보증할 수 없는 저작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즉, SNS에서 유명인의 글을 캡처해 민팅했을 때 그 저작권이 유명인에게 있는지 민팅한 소유주에게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이 문제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규율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NFT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단어가 붙은 것은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가격거품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창작자의 권한이 강화된 NFT 시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NFT의 문제를 염두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정민주의 우리말 바로쓰기

## 간간이 전화 좀 해

'틈틈이', '깨끗이', '나란히' 등 '이'와 '히'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말 중 하나는 '간간이'와 '간간히'다. 이는 모두 사전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먼저, '간간이'는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틈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간간이 들려오는 울음소리', '간간이 생각이 나는 대로 글을 썼다', '바다 위에 간간이 떠 있는 고깃배들',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는 학생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간간히'는 '간질간질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입맛 당기게 약간 짠 듯하게', '꽃꽂하게 굳센 성품이나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우 간절하게' 등



조선어학회 이미지

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음식은 간간히 조리해야 더 맛있습디다', '간간히 바라는 부탁을 꼭 들어주 시면 좋겠습디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마음을 달래준다'와 같이 쓰인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 증가하는 대학생 영끌 대출, 지금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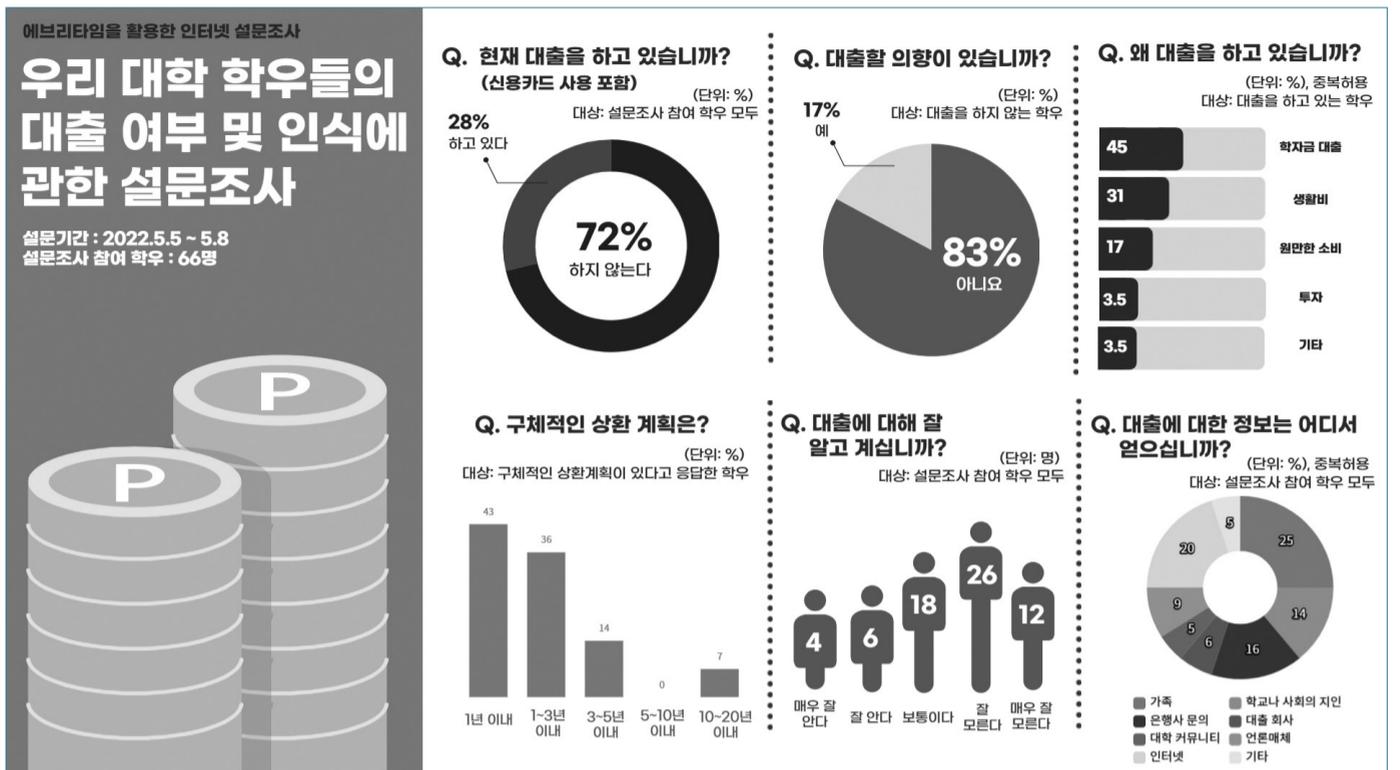
## 우리 대학 학우 중 60%, 경제 지식 없어...청년들은 경제 교육 시급한 상황

부동산, 주식 심지어 생활비 마련과 관련한 2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이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29세 이하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466만원으로 1년 새 29.4% 증가했다며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결과를 지난 3월 29일 발표했다. 또한, 2020년에는 36%가 졸업 후 3년이 지나서야 학자금대출 상환을 시작한다고 집계됐다. 이 뿐만 아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니 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20대들도 금리를 뒤흔치고 비상금 대출 등의 대출에 손을 뻗고 있는 현실이다.

조대신문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대학 학우 중 28%가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45%, 중복응답 허용)을 다음으로 31%(6명, 중복응답 허용)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한다고 답했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 윤상용 교수는 말한다. "벌써부터 돈이 부족해 부족한 지식으로 비상금대출, 생활비대출 등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뒀으며, 금융교육을 받은 후 대출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말한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대출 여부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해 대출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물론 적당한 생활비가 갖춰져 소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이 들고 있는 돌덩이 자체는 작지 않은가. 대학생은 성인이기에, 혼자 돌덩이를 들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 편히 들릴 수 있기에 대출을 쉽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윤교수는 "20대는 신용도가 백지상태다"라며 대학생 때의 무분별한 대출은 새하얗던 백지에 스크래치를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출을 하고 있고, 할 의향이 있는 것은 좋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비를 대출해야 할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정을 꾸리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이라도 대출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83%(38명)의 학우가 대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중 50%(32명, 중복응답 허용)는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돈이 급하지 않음, 26.6%(17명, 중복응답 허용)는 상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23.4%(15명, 중복응답 허용)는 대출 방법을 잘 모름 순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대출을 해서 좋을 것은 없다', '대출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들려줬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은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비율인 25.6%(32명, 중복허용)가 대출 회사, 은행사 문의, 인터넷 등보다 가족에게 대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지방권의 학우들만 봐도 더욱 그렇다. 자취보다는 통학을 주로 하고, 집에서 식, 주거 해결이니 수도권보다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생활비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대출이란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봐야 한다.

"나중에 본인이 독립을 해 집을 사는 등의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관이 성립되지 않은 것"

윤교수는 부모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님을 말했다. 경제관에 무지한 상태로 놓이게 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졸업을 하거나, 사회로 나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대출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 때까지도 부모님이 보조를 해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금융지식이 없는 본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들의 생활도 망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공부할수록 도움되는 대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대출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뿐더러, 무작정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설문에 응답해준 학우 중 10명중 6명은 대출 지식이 '낮음'으로 나타났다. 약 40.6%(26명)가 대출에 대해 잘 모른다, 18.8%가 '매우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 안다'라고 답한 3.1%(2명)와 '잘 안다'라고 답한 9.4%(6명)는 보다는피 매우 드물다.

윤 교수는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사실 금융업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에 금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며 "사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할텐데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 대학생 때는 전공 공부로 인해 금융 과목을 넣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지금 20대가 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가족,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금융교육이다. '금융독립 방법'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은 연령별로 금융에 대한 교육영상을 여러 차트로 나눠 보여주는 홈페이지다. 대학생을 위한 자료로는 ▲대출받고도 신용점수

지키기 ▲돈관리 A to Z 등이 있으며 그들이 원활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윤교수는 현 대학생들의 문제점을 '관심'이라고 지적한다. "막상 찾아보면 다 쉽게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에 발을 딛지 않는 학우들이 안타깝다"며 많은 기관이 대출의 쉬운 접근을 위해 도움을 주기에 정확한 공부를 통해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금융전문가 안수민 전문가 또한 "주변 학우들이 쉽게 대출을 하고 신용카드를 쓰는 것만 보고 따라하면 안된다"며 "상환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본인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상환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멀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총액을 어떻게 여유있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출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자칫하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며, 생활에 지장을 두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같다. '지금이라도 금융기관을 찾아 교육을 받아보자.' 그들은 주변에서 아무도 기관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학우들을 본적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교수가 말한다. "대출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학우들 모두 대출이 안 좋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찍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naver.com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우리 대학 64명 중 58.4%(38명) 대출에 대한 정보 '낮음'**

**무작정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예 안하는 것은 '무지'**

### 사실상 상환계획 이행 불가능

대출을 하고 있는 학우 중 약 30%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을 대출했으며 상환기관을 1년 이내로 잡고 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학우들은 현실적인 상황보다 빨리 돈을 갚아야한다는 생각이 먼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갚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이자율과 빨리 갚고 편한 소비생활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들의 대출 방향을 올바르게 못하게 인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약 3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도 의·식·주 등 생활비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 대출, 해서 안 좋을 것은 아니다

대출 의향이 있는 학우 중 50%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25%가 원만한 소비생활을 위

#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꽃피우는 모두의 집 '동구 인문학당'

내가 이번에 방문한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의 근대가옥을 보존한 '인문도시 동구'를 상징하는 공간 중 하나이다. 우리 대학 정류장에서 서석교회 쪽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게이트볼 경기장 옆 근대가옥을 발견하게 된다. '동구 인문학당'이라고 써진 팻말 옆문을 통해 들어가니 작은 연못과 웅기종기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줬다. 커다란 간판이 있지도 않고 SNS를 통해 활발한 홍보를 하지도 않으며, 주변마저 한적한 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나? 싶었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니 사람이 꽤 많아서 신기했다.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도 짹짹해서 건물 특유의 짹한 색감이 내 눈을 사로잡았고,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한참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동구 인문학당'은 1954년, 김성채 씨에 의해 지어진 집으로 2층의 양옥과 한옥이 하나의 집을 이룬 독특한 건축미를 갖고 있다. 한동안 비어있던 철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동구청이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을 위한 '동구 인문학당'으로 거듭났다. 또한, 인문 관련 창작과 교류가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이뤄지는 인문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다양한 인문적 경



▲ 동구 인문학당의 본체를 찍은 사진이다.

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체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사를 담은

전시와 인문 강좌, 인문 동아리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

실도 운영된다. 다실은 차와 함께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인문관은 시민책방의 기능을 한다.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여 동구의 독립 책방들과 함께 도서를 준비했고, 주민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게 만들었다. 공유 부엌에는 각종 조리기구가 비치돼 있으며, 음식과 관련한 인문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음식문화를 주제별로 설정해 이론교육과 요리 실습을 진행하고 동구의 오래된 기억의 음식을 찾아 발굴하고 기록한다.

'동구 인문학당'을 관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계단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공간, 방과 방 사이의 작은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공간 등 숨은 공간을 찾는 재미였다.

현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공간인 '동구 인문학당'은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바쁜 현대 사회 속, 우리 대학 학우들도 이곳에 모여 저마다의 꿈과 고민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 그날의 생생한 기록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의 꽃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장소들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2년 전 방문했던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떠올랐다. 첫 방문 당시 느꼈던 충격과 심장의 떨림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던 탓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금남로 3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근거리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2011년 5·18민주화운동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연구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설립됐다. 기록관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증언, 언론인들의 취재수첩, 작전일지, 정부기관의 군사법정 자료 등 4,200여 권, 86만 쪽, 3,700여 컷의 사진 필름 등 등재기록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기록관은 총 일곱 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의 1전시실은 '항쟁', 2층의 2전시실은 '기록', 3층의 3전시실은 '유산', 6층의 4전시실은 '진실의 눈'을 주제로 관람할 수 있다. 이 외의 층인 4, 5, 7층은 자료실, 보존서고,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먼저 1전시실 '항쟁'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과 영상, 이를 모티브로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항쟁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출입문의 모습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설치물들은 나의 눈을 사로잡아 발걸음을 멈추고

오랜 생각에 잠기게 했다. 2전시실 '기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

시 생산된 각종 공공 문서와 시민, 학생, 항쟁지도부의 호소문과 성명서 등이 전시돼 있다.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청소년 사망자들의 이야기, 초등학교생의 일기는 통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3전시실 '유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기록물 보존서고 모형, 방문 후기와 소감을 남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물과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4전시실 '진실의 눈'에서는 기록관이 들어서기 전 가톨릭센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이었던 공간을 당시 책상과 집기류 창문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관람하며 우리가 먹고 공부하고 노는 이 모든 공간이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밟고 있는 이 터전은 사십여 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피가 물들어 있다. 시간은 흐르고 공간은 변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으며 부끄럽고 지우고 싶더라도 기억해야 할 과거와 사람들과 장소가 있다. 우리 또한 부정의에 목소리를 내며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뽀족이를 제작한 창업동아리 '리플리히' 회장 고주아(산업공학·3) 학우를 만나다



## “뽀족이의 탄생 ‘리플리히’를 만나다”

**창업동아리 ‘리플리히’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리플리히 동아리는 우리 대학 비공식 캐릭터를 기획 및 제작한 창업동아리다. 비공식 캐릭터를 만들어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주고, 수험생들에게는 우리 대학의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리플리히’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

리플리히는 전남대학교의 양말대 캐릭터를 보고 영감을 받아 결성하게 됐다. 양말대라는 캐릭터는 전남대의 지도 모양에서 따온 캐릭터다. 양말 모양의 캐릭터 외에도 여러 캠퍼스의 지도를 참고해 마들렌, 가오리, 고구마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학도 이런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나 찾아보게 됐던 것 같다.

검색해보니 학과와 관련한 마스코트가 있었지만 요즘 시대상과 맞지 않는 느낌이었고, 우리 대학에 대한 애교심이 차오르는 디자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직접 디자인해 양말대 같은 귀여운 마스코트를 만들어보고자 동아리를 결성하게 됐다.

**리플리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인가.**

리플리히는 미대생, 사범대생, 공대생 등 다양한 학과에서 온 6명이 결성하게 된 동아리다. 6명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원을 더 뽑을까 고민해 봤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면 의견만 흩어질 것 같기도 해서 이 인원으로 결성하게 됐다. 6명이 기획, 캐릭터 디자인, 총무 겸 보고서 담당 등 역할을 분배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뽀족이’라는 캐릭터가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받았다. 뽀족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뽀족이라는 캐릭터는 눈 오는 날 보이는 본관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캐릭터다. 우리 대학의 건물들이 참 예쁘는데 그 중에서도 눈 온 뒤의 하얀 캠퍼스와 본관이 큰 장점이라 생각해 제작하게 됐다. 캐릭터를 자세히 보면 볼터치가 본

관 창문이다. 그리고 본관의 겨울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차가운 계열의 색을 사용했다.

**다른 캐릭터 ‘장냥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냥이는 뽀족이만 만들기에는 서운하다는 생각이 있어 뽀족이의 서브 캐릭터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얼굴에 두른 장미가 포인트다. 우리 대학의 유명한 장미 축제를 모티브로 장미라는 단어와 고양이라는 단어를 합쳐 장냥이라고 이름지었다. 장냥이는 처음에 ‘장땡이’라고 장미와 강아지를 합친 캐릭터였으나, 어감이 살짝 어색했던 것도 있었고 우리 대학 내에 고양이들이 많기에 고양이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위의 두 캐릭터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캐릭터를 제작하기 전 먼저 키워드를 정리해 봤다. 우리 대학에서 유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본관, 장미공원 등이 떠올랐고 이에 대한 디자인과 기존의 마스코트였던 학에서 디자인을 뽑았다. 마스코트를 학우분들과 함께 만든다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디자인한 캐릭터들을 에브리타임에 투표로 올렸다.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뽀족이와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장냥이가 마스코트로 만들어지게 됐다.

**마스코트를 만들면서 팀원들과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일화는 투표를 통해 학을 떨어뜨리게 됐을 때 학을 열심히 디자인해 준 친구에게 학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그 친구도 뽀족이가 마음에 든다고 해 뽀족이를 메인 캐릭터로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일화는 엽서를 제작할 때가 기억에 남는다. 4명이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맡아 엽서를 제작하게 됐는데,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면서 각자의 그림체로 나오는 것이 재밌고 귀엽고 색달랐던 것 같다.

**창업동아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 다른 동아리들은 가등록 과정을 거쳐 정식

동아리로 승인받기까지 1~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창업동아리는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이 없었으니 경쟁률도 낮아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상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리플리히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리플리히는 작년에 결성됐다 보니 팀원분들 중에는 이제 4학년이 된 학우도 있고, 나도 휴학을 한 상태라 창업동아리 대표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조금 쉬어가는 단계에 있다. 조만간 우리 대학 캐릭터 공모전이 열린다고 알고 있어 리플리히 동아리원들과 함께 출품할 계획이다.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에 귀여운 캐릭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회장 고주아’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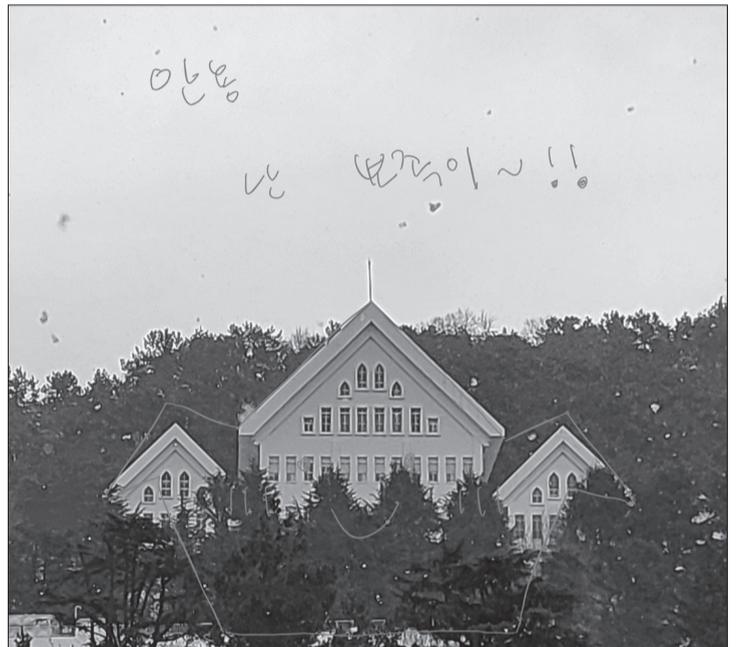
공대생이지만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런 생각을 창업동아리를 통해 이뤄냈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기획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된 것 같다.

또한, 이번 굿즈 제작 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예술에 관심이 생긴 부원들이 있어 함께 문화예술 동아리를 따로 만들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라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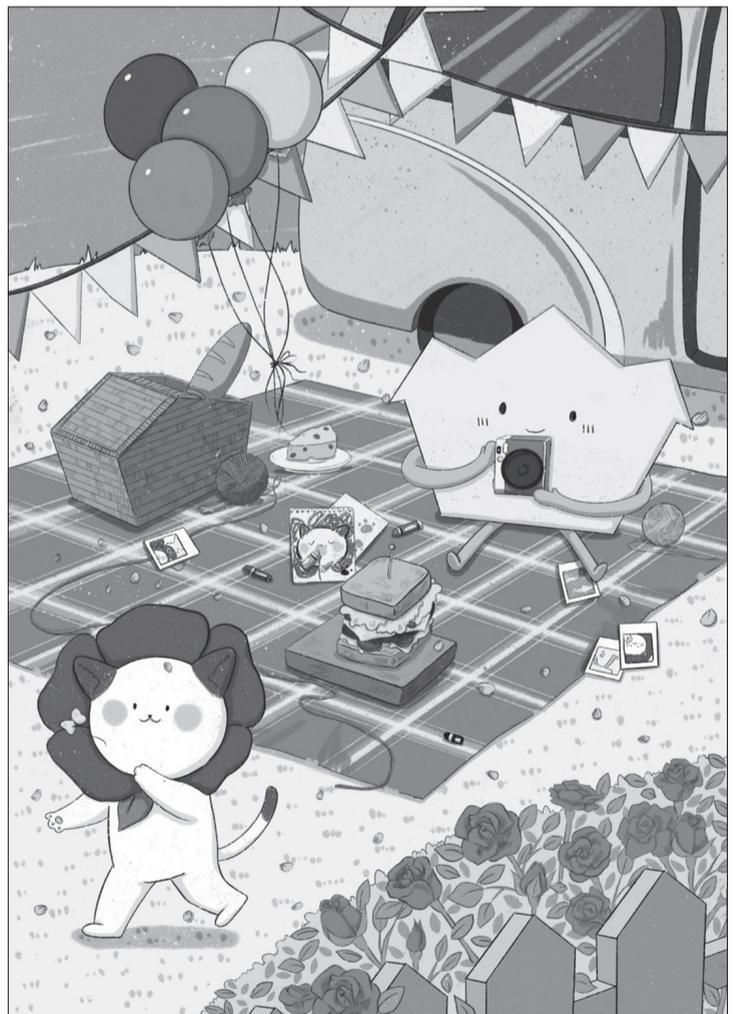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리플리히를 결성하고 굿즈를 제작하면서 느낀 소감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다. 지금까지 엽서, 키링, 볼펜, 배지, 스티커 이렇게 5개의 굿즈를 제작했다. 굿즈를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진 캐릭터이기에 우리의 굿즈를 구매하신 분들이 후기와 착용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우리도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애교심이 더욱 생겼던 것 같다. 우리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만들다 보니 우리 대학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캐릭터 ‘뽀족이’가 화제다. 귀여운 우리 대학 본관 모양의 캐릭터와 그 옆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는 많은 학우들의 귀여움을 샀다. 뽀족이를 제작한 창업동아리 ‘리플리히’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주아(산업공학·3)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플리히 동아리와 뽀족이의 탄생비화에 대해 알아봤다.



▲본관을 본 따 만든 뽀족이



▲뽀족이와 장냥이

각이 많은 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동안 굿즈를 제작하면서 동아리원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많은 관심을 주

신 학우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 민주화의 기록이 담긴 우리 대학 캠퍼스

## 모르고 지나치는 학우들이 대다수, 관심이 필요할 때

광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이 다가왔다. 우리 대학 캠퍼스는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학교를 점령하고 체육관 등을 시민군 수용소 등으로 이용하며 탄압했던 아픔이 담긴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보이는 각종 추모비와 기념탑, 운동장 및 건물을 비롯해 심지어는 거리마저 1980년 5월의 광주를 담고 있는 곳이다.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곳곳에서 아픈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마련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담긴 우리 대학 캠퍼스를 살펴보고 그 역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김동수 열사 추모비



▲서석홀 김동수 열사 추모비

우리 대학 캠퍼스 미술 대학 건물 뒤, 서석홀 앞터 후문 길에는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글이 새겨진 추모비가 있다. 이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동수 열사의 추모비다.

김동수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 19일 광주 민주중항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자로 수배된 것으로 판단해 목포로 피신했다가 5월 21일 계엄군의 학살 만행 소식을 듣고 광주로 귀환해 전남도청항쟁본부에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김동수 열사는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산화됐고 망월동 묘지에 가매장됐다. 시간이 지나 1989년 2월 25일 우리 대학에서 명예공학사 학위를 받은 김동수 열사는 현재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다.

현재 김동수 열사를 기리기 위해 추모비 주위에 연등이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철규 열사 추모비



▲체육대학 이철규 열사 추모비

우리 대학 체육대학 건물 앞 공터 벤치 뒤편에는 이철규 열사의 추모비가 위치하고 있다. 1964년 5월 6일 장성 출생인 이철규 열사는 지난 1982년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 이후 1989년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철규 열사는 1989년 4월 20일 교지발간과 관련해 [민주조선] 편집위원 전원에 대해 수배조치가 내려져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수배가 걸려 쫓기던 중 5월 3일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진 뒤 일주일 후인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1989년 11월 4일 사인진상규명투쟁 178일 만에 민주 국민장으로 이철규 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했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이후 지난 2004년 5월 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아직 이철규 열사 의문의 죽음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철규 열사의 의문과 관련해서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불능’을 결정했다. 지난 2004년 5월 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 류재을 열사 추모비

서석홀과 대학원 앞터에는 류재을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우리 대학 행정학과 96학번으로 입학하고 지방자치제 연구회 분과장을 맡고 있던 류재을 열사의 손에는 책과 펜이 아닌 깃발과 돌맹이로 가득했다. 류재을 열사는 지난 1997년 3월 20일 우리 대학 정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던진 물체를 맞고 쓰러졌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 날 오후 3시경에 20살의 나이로 운명했다.

이후 65일간의 투쟁 끝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지난 2001년 2월 우리 대학 명예졸업장을 수여했고 지난 2004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서석홀 류재을 열사 추모비

서석홀과 대학원 앞터에 위치하고 있는 류재을 열사의 추모비. 우리 대학 지방자치제 연구회 분과장을 맡고 있었던 류재을 열사의 손에는 책과 펜이 들려있어야 했지만, 열사의 손에는 항상 깃발과 돌맹이가 들려 있었다.

### 김학수 열사 추모비



▲서석홀 김학수 열사 추모비

서석홀과 대학원 앞터에는 김학수 열사의 추모비도 위치하고 있다. 1985년 우리 대학 산업공학과에 입학한 김학수 열사는 민주화투쟁 참여 중 군에 입대했다. 1988년 전역 후에는 전국건축일용 노조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1989년 2학기 복학 후에는 총학생회 예비역 협의회로 활동했다. 이후 1990년 5월 18일 5·18 10주기 집회에서 과도한 최루탄 투입으로 쓰러져 입원을 했

으며 끝내 1990년 6월 6일 운명했다. 김학수 열사는 제33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정자가 됐다.

### 민주화운동 기념탑

지난 1987년 5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우리 대학에서는 제왕적 족벌 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학원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때, 학생들은 수업거부와 장기농성 투쟁으로, 교수들은 양심선언으로, 동문들과 시민들은 지지 서명 등 정신적·물질적 후원으로 우리 대학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13일간의 장기농성 투쟁장에 지난 1988년 1월 8일에 경찰이 강제 진입했고, 이는 민족자주교육과 인간중심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대학의 새 역사가 전개되는 분수령이 됐다.



▲서석홀 민주화운동 기념탑

민주화운동기념탑은 구 경영진의 권위주의적 경영과 억압체제에 맞서 싸우며 오늘의 대학 발전을 맞이한 우리 대학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물이다.

우리 대학 학우들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대학 캠퍼스는 1980년 5월 17일 자정 학내에 계엄군이 주둔했으며, 항쟁 기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잡혀 와 끔찍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대학 전체가 5·18민주화운동 사적 12호로 지정됐으며, 여전히 우리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민주화운동에 힘쓴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나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비로 가득하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우들조차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김없이 광주의 5월이 찾아왔다.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대학 캠퍼스를 살펴보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 오월의 빛과 그림자를 마주하다

## 5·18 자유공원 투어 일지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세상,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국민들이 자리매김하기까지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껍데기를 벗어내야만 했다. 나비가 번데기를 가르고 태어나듯 민주주의의 날갯짓은 번데기 속에서 몸부림쳤던 수많은 나비들로부터 깨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광주에 그 애절하고도 감격스러운 투쟁의 기록들이 남아있다.

오월이 오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5·18을 기린다. 어느 때처럼 이달을 맞이하며 문득 5·18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돌아보게 됐다. 부끄럽게도 중고교 시험으로 외우듯이 배웠던 교과서 속 '5.18'이 그나마 관심을 가졌던 전부였다. 그마저도 대학에 다니며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번호를 준비하며 오월의 역사를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차근차근 밝히고 싶었다. 이번 체험에서는 '공감'의 키워드를 품고 5·18의 역사적 감정을 마주하기를 바라며 5·18자유공원을 찾았다.

5·18자유공원은 민주화 운동 당시 정권 찬탈을 기도하던 정치군인들의 강경 진압에 맞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현재는 100m 거리에 법원과 영창의 원형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신군부는 5·18 비상계엄령을 통해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 이곳에서 시민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며 폭도로 몰아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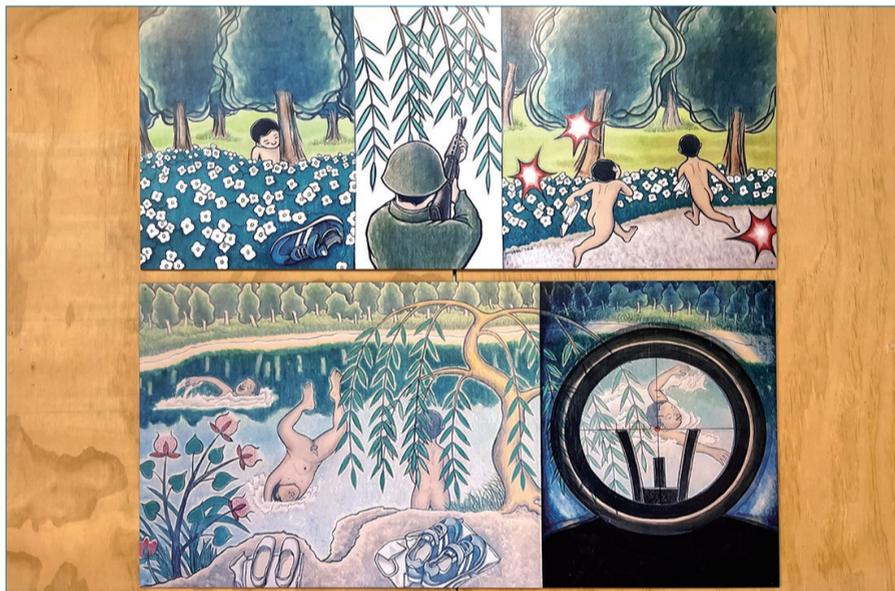
5·18자유공원을 알리는 조각상을 눈에 담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유관이였다. 영창과 법원 체험에 앞서 5·18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 사건이 영상, 전시품과 함께 기록된 곳이다. 입구 근처에서 벽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띄었는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사망자의 시신을 덮었던 것이라고 한다. 천의 곳곳이 얼룩지고 바랬지만 전시관의 자리를 늠름하게도 지키고 있었다. 순국선열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나라가 적어도 그들의 마지막을 감할 수 있었음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유관에서 나와 우측에 있는 법정과 영창 시설에다가가자 당시에 이뤄졌던 가혹한 고문과 폭력을 재현한 모형이 속속 드러났다. 무기를 들고 시민군과 연행자를 위협하는 헌병의 모습은 나를 과거의 암담한 현장으로 데려다 놓는 듯했다. 그들은 군인의 이름으로 지켜야했던 국민에게 모순적이게도 총과 곤봉을 겨누고 있었다.

관람 순서를 따라 들어선 헌병대 중대 내 무반은 5·18의 역사적 의의와 비로소 지켜낸 민주주의 숭고함을 기리는 안내로 체험의 시작을 알렸다. 5·18 기록물들은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돼있다. 그 역사적 기록들이 하나씩 조명되는 가운데 발견한 짧고도 애절한 글이 있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들이 붙잡혀 끌려온 현장을 재현하고 있다.



▲시위와 무관한 소년들이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



▲영창의 수용거실에서 기합을 받는 수감자들을 재현하는 모습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18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몰래 신문을 발행하려다 실패하자 제출한 집단 사직서다.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신문에 신지 못하는 기자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저항이었던 절필과 사직서 그리고 검열의 흔적은 광주에 가해졌던 정치적 고립과 압박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곧이어 전시의 주제가 투쟁에 맞춰 무거워졌고 5·18 민주화운동이 역사적인 의의를 인정받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픔에 한 걸음씩 짚어 들어갔다.

긴 방들로 이어진 헌병대 본부 건물은 시

내에서 계엄군에게 끌려온 시민들을 조사했던 곳이다. 반란의 방, 분노의 방, 통곡의 방 등의 제목과 함께 5·18 투쟁 현장의 사진과 증언이 전시돼 있었다. 현장에 대동 됐던 군대의 위압감. 어떤 이의 마지막 소지품과 마지막 얼굴, 총탄의 자국과 같은 자료들이 이어졌다. 긴 방들의 끝에는 사상자의 사진을 공개한 '통곡의 방'이 있었는데, 전시장의 불을 켜자 총상을 입거나 곤봉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의 사진 몇 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 앞에 펼쳐진 참상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깊은 탄식만이 조용히 공간을 메웠다.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게 부서진 시신과 도저히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희생자들의 모습. 채 눈을

감지도 못하고 별이 돼버린 이들의 마지막을 보고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글을 쓰는 지금도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분노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담벼락의 철문을 지나 확인한 영창은 한 두 명의 헌병들이 여러 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반원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강제 연행된 시민들을 구금했던 이곳은 하루 16시간의 정좌 자세 수감생활과 구타, 감시가 이뤄졌다. 넓지 않은 방에 150명이나 되는 이들이 수감돼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었으며 독거실에 갇혀 세 손가락이 채 되지 않는 식사를 하며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지독한 수감 생활의 끝은 군사재판이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구속자들을 군사 재판하기 위해 급조해 제작된 법정은 재판의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으로 무장한 헌병들을 입장시켜 진행됐다. 공포감 속에서도 구속자들은 부당한 군사재판을 항의하는 의미로 애국가를 합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짜인 각본에 의해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체험하는 2시간이 남짓한 시간동안 5.18 사상자의 모습,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부터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강도 높은 고문의 현장까지,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형태가 나를 스쳐갔다. 그래서일까 체험을 마치고 나오자 만감이 교차하며 이곳을 떠나는 것조차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학생이었고 젊은이들이었다. 어린아이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그런 철학 같은 날들이 지나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일렁이기 시작할 것이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은 5.30 서강대 학생의 진상규명 투신자살을 시작으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광주의 소식이 퍼져가면서 흉터를 매만지듯 민주주의의 파도가 광주로 밀려왔다.

이제는 적어도 오늘날 광주와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인권의 의미가 민주화 운동을 이어간 시민들의 덕이었음을 깨닫는다. 한편으로는 사진 속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오래 남았다. 그리고 이 마음을 기념비에서의 짧은 묵념으로나마 애써 전하고자 했다.

오월, 그날의 참상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온 시간이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민주 정신의 역사는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글을 마치며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가장 고전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어찌하면 당연히 여겼을 인권과 평화는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님을. 오월,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지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민  
중  
예

## 도서 &lt;소년이 온다&gt;

## 국가는 무얼 위해 존재하나

중학교 3학년인 주인공 동호는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시위 도중 도망치다 친구 정대의 손을 놓친 후 실종된 정대를 죽음으로 마주한 후부터다.

김진수는 아직 뺨에 솜털이 나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얼굴이 희고 속눈썹이 유난히 짙은, 팔다리와 허리가 가늘고 길었던 김진수는 마지막 날 밤인 그날, 도청에 남아 눈을 부릅뜬 채 산화했다. 1980년 5월 18일, 친구들과 조잘거리며 뛰어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닐 학창 시절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책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장편소설이다. 총 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챕터마다 주인공 동호와 그 주변 인물들로 소설 전개 시점이 바뀐다.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쏘잖아. (중략)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소설 속 동호와 은숙의 대화 내용이다. 국가라고 이름 붙은 것이 시민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때리고 총을 쏘다. 본래 국가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국가가 우리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다. 1980년 5월 광주에

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시민이 싸운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책<소년이 온다>를 펴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흘린 듯이 읽어 내려갔다.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철저한 자료조사와 증언들을 수집해 책을 썼다고 한다.

분명 책은 나의 시각을 통해서 읽히는 매체임에도 내 눈과 귀, 촉각까지 자극이 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때문인지 실제 내가 당시의 광주시민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었던 광주 시민은 평범한 아이였었고 청년이었고 노인



이었다. 책 <소년이 온다>를 통해 그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 도서 &lt;5·18 푸른눈의 증인&gt;

## 제삼자의 눈으로 1980년 광주를 바라보다

<5·18 푸른 눈의 증인>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있었던 폴 코트라이트의 회고록이다. 폴 코트라이트는 20대에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나주에 있던 호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가 봉사활동을 했던 시기의 한가운데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 책은 5월 14일부터 5월 26일 서울로 올라오기까지의 13일간 그가 겪었던 일들을 낱자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폴 코트라이트가 민주화운동을 겪은 광주시민도 아니고 당시에 광주를 몰랐던 한국인도 아닌 제삼자로, 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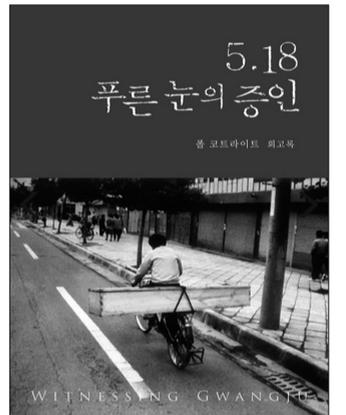
프롤로그에 “우리는 여기를 알릴 방법이 없어. 자네는 봤지? 자네가 본 것을 다른 나

라 사람에게 꼭 알려주게.” 그 순간부터 나는 ‘증인’이 돼야 했고, 그 할머니는 피할 수 없는 큰 과제를 내게 주었다. 나는 그 할머니가 주었던 과제를 하지 못했고 40년이 지난 이제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다. 그는 한순간 ‘증인’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당시의 노트, 편지, 사진 등의 자료들을 꺼내 이 책을 쓰기까지 40년이 걸린 이유를 밝혔다. 광주를 기억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그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심리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는 회고록 집필 작업을 통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들은

여전히 40년 전의 광주를 잊지 못했고 그 기억에 큰 고통을 느꼈으며, 그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낸 용기 덕분에 우리는 1980년 광주의 실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회고록을 집필함으로써 인해 그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길 바라며, 오히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광주의 대학생들은 5월에 축제를 하지 않고, 대신 5월 18일이면 학교 앞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며 1980년의 광주를 기억한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나만의 방법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5·18에 대해 잘 모르거나, 5·18을 지켜본 당사자의 눈이 아닌 제삼자의 시선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고 싶은 학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 영화 &lt;오월애&gt;

## 이름 없이 살아간 이들을 묵묵히 담아내다

어느덧 다시 오월이다. 광주의 오월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함이 깃들어 있는 말일 것이다.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광주의 5월은 가슴 한 편을 저리게 만든다.

1980년 5월 당시를 살아가지 못한 우리는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자료나 관련 작품, 전시 등을 통해 광주를 알아가거나 느끼곤 한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그간 수많은 거짓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덧대어진 역사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할 순 없다. 사람들에게서 익숙해진 만큼 점차 이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군가는 80년 5월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

고 그 당시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를, 그 사람들을 상업적인 요소로 이용하곤 한다.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우리는 적어도 5·18과 관련된 진실이 아닌 상업용으로 제작된 작품을 통해 그 당시를 경험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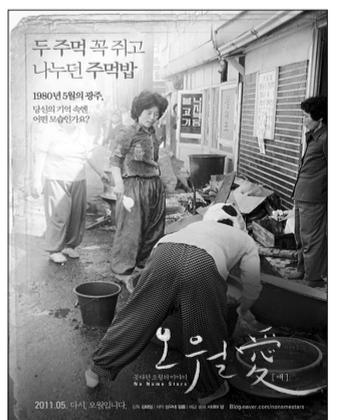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유명 작품이 많음에도 그중에서 나는 영화 <오월애>를 떠올렸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어쩌면 상업 영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지루함을 안겨줄 수 있다. 80년 5월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묵묵히 담아낸 이 영화는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준다. 허황된 이야기나 과장된 80년 5월이 아닌 그 당시

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인물을 담아낸 것이 아니다. 시민군에게 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아주머니와 당시 버스를 운행했던 기사님 등 이름 없이 살아갔던 역사의 산증인 이들이 어떻게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와 더 나아가 이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이 인상 깊은 작품이다.

어느덧 80년 5월을 떠올리는 42번째 오월이다. 각종 소문과 거짓 정보에 휩싸여 여러



차례 반복된 아픔을 겪었던 5월의 광주를 보다 사실적으로, 묵묵히 다룬 영화 <오월애>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문화허브> 속 모든 작품은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유희와 박해당하는 동물권

오늘날,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에 말이 머리부터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말을 방치해둔 채 배우만 데려가 치료해 며칠 뒤 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공분을 샀다. 이 외에도 동물원에서 도망친 퓨마를 사격해 죽인 사건, 아쿠아리움, 동물원, 동물 쇼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들의 희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물권이란 인권을 확장한 개념이다. 즉, 인간동물과 같이 비인간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우리의 유희와 즐거움이 다른 생명의 목숨과 자유에 맞먹는 것일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식지와 먹이를 잃은 동물부터 각종 동물 쇼를 위해 감금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동물까지... 다른 종의 생명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유희를 위해 유린당하고 있다. 동물권의 사각지대와 동물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하고 비건을 실천하는 20대 학생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그 문화를 소개하겠다.

### 동물권의 사각지대\_동물원과 아쿠아리움

5월은 가족의 달이라 불릴 만큼 가족 단위 행사가 많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 젊은 커플, 학생들은 연휴를 틈타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으로 나들이를 가곤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물원 나들이, 그 이면에는 불편한 사실들이 있다. 큰 바다를 자유롭게 수영하던 돌고래와 벨루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던 원숭이와 표범은 인간에게 '납치'돼 좁은 철창 속 구경거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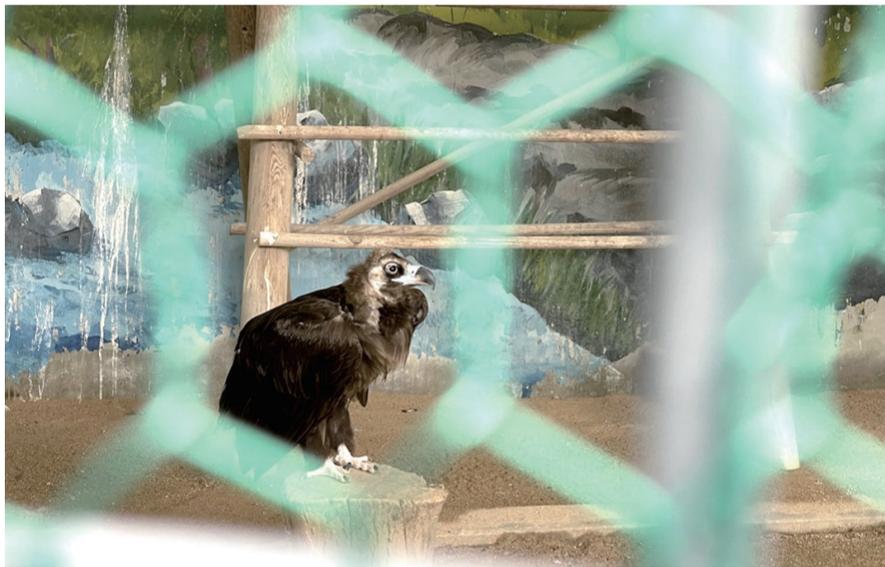
좁은 공간과 구경꾼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형 행동을 보이거나 제 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 동물들이 허다하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수족관 고래 22마리의 바다 방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수족관에서 죽은 고래 대부분은 병사로 자연사가 극히 드물다"며 "물 자체가 오염돼 있어 패혈증 같은 병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고, 원래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무시하고 관람객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사육장과 관람객들과 동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일들이 만연하다.

### 동물권의 사각지대\_식사와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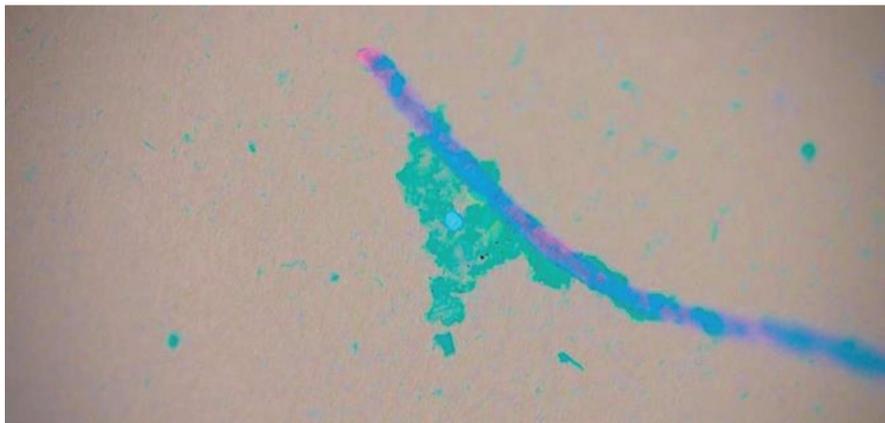
하루 세끼의 식사 시간, '고기'는 매우 흔하게 우리의 식탁 위로 놓인다. 그 '고기'가 식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공정이 거쳐진다. 축산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투여되는 항생제와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 염증은 모두 우리 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특정 항생제를 오남용해 과다 투여 받은 동물은 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고 그 효과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 방영 당시 드라마 촬영 중에 낙마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동물원에 갇힌 독수리가 그물망 사이로 보인다.



▲미세플라스틱의 섬유 표면에 달라붙은 육지 병원체

줄어들게 된다. 그런 상태의 축산물이 인간에게 균을 옮기게 되면 환자에게도 항생제의 효력이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하기 어렵다. 지난 2016년,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다.

육류의 섭취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으며 육류 섭취가 꼭 필요한 신체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때문에 '먹자', '먹지 말자'를 판가름하기엔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좁고, 청소되지 않은 철창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도축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도축 전후 과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동물권의 사각지대\_환경과 동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상기후도 심각해졌다. 더운 여름은 더 더워지고 추운 겨울은 더 추워지고 봄과 가을의 경계가 무너져버렸다. 지난겨울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살충제 등의 인재로 78억 마리의 꿀벌이 집단 폐사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생태계에서 수분을 가장 많이 하는 곤충이다.

더불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5mm 이하로 쌀알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에 세균이나 기생충 등이 붙어 해류를 타고 해양 동식물을 감염시키거나 사람이나 동물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이 육지의 병원체가 해양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진

박영진

김남현

### '동물권 지키기'에 나선 청년들

최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행사나 시위들이 열리고 있으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비건을 실천하고 동물권 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20대 학생들과 인터뷰했다.

ㄱ 씨(20대, 여성)는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읽고 공장식 축산업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채식의 널리 알려 동물권을 향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건이 핫키워드며 떠오르며 비건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동물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ㄱ 씨는 "당연한 것들을 의심해 봤으면 좋겠다. 고깃집 앞에 웃고 있는 돼지의 그림이 자연스러운지, 개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구워 먹는 소고기에 대해서, 공장식 축산의 뒷배경에 대해서 말이다. 한 명의 완벽한 채식인보다 백 명의 불완전한 채식인이 세상을 바꾼다.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도 좋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ㄴ 씨(20대, 남성) 또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통해 식탁 위로 올라오는 음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며, 생명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건을 시작했다. 그는 '멸종반란'이라는 기후생태정의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단체에서 활동하며 기후위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닌 영향을 주지 않은 사람들과 비인간들이 피해를 입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보통 도시에 살고 있고, 시골이라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시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다른 존재의 관점을 상상하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의 생활양식은 정말 최근에 만들어졌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다른 이들의 관점을 상상하는 일이 '나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며 좋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두 사람 모두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비건을 하거나 동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임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처럼 동물의 삶에 인간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도 동물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분업화되며 우리는 죽음의 과정에서 한 발짝 멀어졌다. 터치 몇 번이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소비자에게 치킨 한 마리가 도착하는 시대다. 물론 분업화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감각이 무뎠어지고 있다. 인간의 유희를 위해 박해당하는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 역사와 시대 인류의 전진

# 조대신문

# 직원기자 모집

조대신문이 새롭게 직원기자(모니터링단)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2.05.16~ 05.31

· 모집인원 | 00명

모집대상 우리 대학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X)

모집 분야 모니터링단 코너 <옴부즈맨>

원고 작성 및 신문 평가회의 참석

활동 혜택 매달 소정의 장학금 지급

지원 방법 조대 신문 홈페이지([ghttps://www3.chosun.ac.kr/chnews](https://www3.chosun.ac.kr/chnews)) → 공지사항에서 해당 지원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chnews21@hanmail.net](mailto:chnews21@hanmail.net)로 제출

발표 2022.06.02(목)부터 개별 공지문의 010-3528-5592



기자칼럼

#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겐 도전이고 두려움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년째 관련 시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아직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절규하고 있다.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시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버스만 봐도,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현저히 그 수가 적다. 버스에서 하차할 때 계단이 높아서 비장애인인 나도 철썩 뛰어내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분들 역시 힘겹게 하차하신다. 그런데 장애인은 어떻게?

전장연의 시위가 알려지면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비장애인의 교통 지체였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시위 때문에 지각하거나 중요한 약속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일반버스를 타고 내리기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대부분이 보급률 30% 미만을 밀도는 수준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다.

당장 우리 대학만 봐도 본관으로 가기 위해선 108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나는 108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셔틀버스 역시 저상버스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본관에 올라 수업을 듣는 것일까.

이동권 침해는 장애인의 다른 권리 또한 침해한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다.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다른 기본권 역시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없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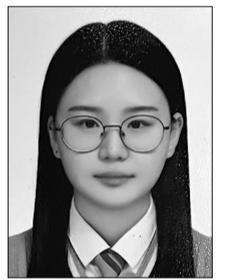
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거나 다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 10분 지각할 위기에 처한 자신만 생각한다. 그들은 20년간 자신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했다.

그들을 특수 상황으로 치부해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공평하게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그들이 휠체어를 타고 문을 통과할 수 있게 잠시 기다려주는 일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이, 문을 잡아주는 일이 배려 혹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들에겐 생존이 달린 일이고 삶에 걸친 문제다. 남을 돕는 일이 위선으로 느껴지고, 남을 돕자고 말하는 글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가식이라도 떨

어보자는 얘기가.

20년 동안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칠 때 누가 그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주었나. 내가 사는 사회는 어찌 보면 폭력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떼쓰듯이 말해야만 들어주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비난하는 사회라는 것인가.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찾아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와 다르다고 모른 채 살아갈 수 없다.



정민주 기자  
minju01@naver.com

옴부즈맨

## 되찾은 대학 생활의 활기가 느껴진 1141호

1면에는 1학기 대면 수업 시작과 함께 회복된 캠퍼스 생활의 활기로 가득했다. 전공을 살려 학우들을 위한 웹을 제작한 컴퓨터공학과 학우들의 인터뷰는 웹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학생으로서 일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하단에 이어지는 상반기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총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홍보 한마당 기사는 코로나 이전의 대학 생활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2면에는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교내 코로나19 검사소'와 '확진돼 대면 수업에 불참하게 된 학우의 수업 보장'을 나눠 제시한 점이 가독성을 높여줬다. 첫 번째 문제인 '교내 코로나19 검사소'의 경우에는 '이화 세이프스테이션'이라는 좋은 사례를 제시했지만 두 번째 문제인 '확진돼 대면수업에 불참하게 된 학우의 수업 보장'의 경우에는 보완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례로, 현 의과대학에서는 대면 강의를 구글 미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을 해 코로나19로 격리된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3면의 우리 대학 민영돈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잘 풀어냈다. 특히 예산 삭감과 관련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 아쉬웠다. 또한, 최근 잦은 오류로 도마 위에 올랐던 종합정보시스템 개편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측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올 한

해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원 등의 여러 활동이 정상화돼 총장님이 제시한 우리 대학의 비전과 함께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었으면 한다.

6면의 음악 소비문화와 8면의 뉴욕 여행기 등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여가 생활을 소개했다. 음악 시장 발전으로 바뀐 음악을 접하는 방식부터 소비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 음악 소비문화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요즘에 여러 여행 사진들과 에피소드들을 통해 코시국 여행기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7면은 제목부터가 단연 눈에 띄었다. '문학보다는 삶이 먼저가 되는 학우들을 기대하며'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은 기사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다. '평론가 신형철', '교수 신형철'로 나눠 인터뷰를 진행한 점이 신형철 교수님의 가치관이 더 잘 묻어날 수 있었고, '문학론이 아닌 인생론에 대한 강의', '누가 들어도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강의'라고 문학보다는 삶이 먼저라는 신형철 교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학우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중간고사도 끝이 나고, 거의 모든 학교 시스템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근 2년간의 회포를 풀기라도 하듯, 장미원의 장미들도 하나둘 피어나고 있다. 신입생부터 흔히 말하는 코로나 학번 학우들까지 모두 캠퍼스를 느끼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정최다빈(의예과·2)

## 날/말/퍼/즐

페	위	이	추	겐
문	츠	모	철	지
비	윤	사	하	르
주	규	신	공	교
대	헌	터	열	희

### 지난호 정답

조대신문

### 지난호 정답자

- 김희주(공공인재법무·4)
- 김종운(화학교육·3)
- 고승현(기계공학·4)

- 조대신문은 학교 측의 언론 탄압 등으로 신문 발행체제가 무너지자 1983년 6월 별지의 신문 <0000>을 제작했다.
- 우리 대학 체육 대학 건물 앞 공터 벤치 뒤편에는 <00000000>가 위치하고 있다.
- 국립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00000000>의 묘지가 있다.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은 뒤 학과, 학년, 이름과 함께 5월 31일까지 chnews21@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학생증을 가지고 학생회관 1층 조대신문사로 오시면 문화상품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상품권 수령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까지입니다.

교수칼럼

# “지방공항 국제노선 분배로 국가균형발전을 꿈꿔 본다”

우리나라는 경제, 인구, 문화 등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너무 커 지나칠 정도로 수도권 중심의 나라여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지방공항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이용객이 수도권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누적 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공항은 더 충격적이다. 한국공항공사(2020)의 「최근 5년 국내 공항 손익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공항이 전남지역의 무안공항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코로나19 이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2018)의 지방공항 분석자료에서도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적자운영이었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공항 역시 무안공항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신규 건설 4곳(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대

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확장 4곳(무안공항, 청주공항, 서산공항, 울산공항)을 포함한 8대 지방공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중에 가덕도 신공항에만 무려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의 지방공항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대 지방공항을 확대·추진하겠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지방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적자를 메꾸기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국민혈세 낭비는 자명해 보인다. 이렇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지방공항 문제는 지역경제, 지방인구 확보, 지역관광 등과 어우러져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더 이상 지방공항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지방공항에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노선 지방 분배를 제안해 본다. 이는 국제항공노선을 전국 지방공항에 분배하여 특화하는

방법으로 강원권 공항은 우리나라의 동해와 가까우니 미주 방향 노선을 분배하고, 경상권 공항은 남쪽 지역인 남태평양 방향 노선을 분배하며, 호남권 공항은 우리나라의 서쪽 방향에 위치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방향 노선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지방공항 국제노선 분배가 실행된다면 석유 정제유 가운데 가장 비싼 항공유가 절약되어 항공 유지비 절감은 물론 일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공항과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제노선을 각 지방공항으로 강제 할당하여 나누기라도 해야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한 억지 주장이라도 하고 싶다. 하지만, 특정 분야·특정 사람·특정 지방에 편중된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의 인구 비율과 경제력 여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반영된 전문적 검토가 이어지길 바란다.

상상해 본다. 각국의 관광객과 전 세계 산

업바이어가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으로 찾아 오고 나가는 장면이 떠올려본다. 각 지방 국민들이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을 위해 서로 다른 지방의 공항을 찾아가고, 이용하면서 각 지방에 사람들이 넘쳐 지방 경제가 들쭉 들쭉이면서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큰 계기가 되는 것을 꿈꿔 본다. 지방의 균형적 발전은 실제 한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본다.



정성배 교수  
(행정복지학부)

수습일기

## 나의 ‘그림자’

중학교 시절 난 가장 친한 친구가 점점 어린 티를 벗어 나는 모습에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이 감정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잘 모르기도 했고 친구에게 드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친구가 변화하는 모습에 “안 어울려”와 같은 모진 말을 던지며 투사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사이가 틀어진 채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생이 돼서 그 시절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는 친구에게 나의 어린 시절 감정을 인정하며 사과를 한 경험이 있다.

지난달 우리 대학 ‘자아의 발견과 진로 탐색’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이러한 나의 마음은 무의식적 영역에 존재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무의식은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기에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채로 살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발표할 때마다 떠나는 나,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나 등 내가 싫어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다. 특히 발표할 때마다 떠나라 준비한 걸 제대로 못하고 내려오면 후회가 많이 남는다. 열심히



김아리 수습기자  
ariya1120@naver.com

준비한 과정이 있는데 발표한 순간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표 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떨고 있는 나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고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됐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저 말 한마디로라도 위안을 삼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완벽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우울하고 초조해질 때면 힐링과 대일밴드 같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목소리, 나의 무의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항상 우울할 때면 나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차라리 슬픈 영상을 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들으며 나의 우울이라는 상처에 밴드 처방을 해줬다. 최근 들어서는 ‘회피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나의 내면의 목소리와 무의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으면 좋겠다.

수습일기

## 앞으로의 내 몫

대학 입학 후,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참여해 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았다. 물론 별개로 학업과 같은 해야 할 일도 있었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전에 나는 ‘선택’이라는 새로운 일과를 맞이해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표에 내가 맞춰 가면 됐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진 틀에서 행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표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대학에 온 만큼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스스로 시간을 잘 분배하여 행해야 한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직접 찾아서 해야 한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좋은 고민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우선순위와 시간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을 다 끝냈다. 이런 고민을 끝내고 선택한 활동들을 하게 되니 가장 큰 가치가 시간이라고 생각됐다.

우리는 앞으로 더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과, 일, 여가 모두를 균형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 간다고 생각한다. 하루 24시간을 빼곡하게 쉬는 시간도 없이 스케줄을 잡아 놓을 수



백어진 수습기자  
uhjin0304@naver.com

는 없다. 휴식조차 없이 짜놓은 스케줄은 삶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고 점차 놓치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생기게 한다.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임에도 힘들만 따라오는 것은 처참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여가가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시간 분배에 따른 내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는 동아리나 대외활동 등의 활동을 생각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과 여가 등을 하고자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던 선택은 따르게 된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빠지지 않고 하게 된다.

앞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도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과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고자 할 수는 없다. 내가 내 시간에 맞게 선택하고 행해야 한다. 이제는 그게 내 일의 몫이자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 설

#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예견치 못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대폭 축소되고 중단되었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와 관련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진다.

42년 전, 1980년 5월 18일, 그날을 전후로 광주와 전남 일대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한 민중항쟁이 전개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5·16 정변으로 세워진 군사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한 우려와 성토는 1980년 5월 초 민주화 항쟁과 저항으로 표출되었

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의 집회 및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광주에서는 전남대와 우리 조선대의 학생이 주도한 시국 성토타회가 연일 개최되었으며 학생들은 거리로, 도심으로 나아갔다. '민족 민주화 성회'로 불리기도 한 집회와 시위는 5월 16일까지 이어졌다. 시위의 확산에 위협을 느낀 신군부는 5월 17일 23시 40분을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광주에서도 전남대와 조선대에 계엄군이 투입되어 학생 112명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5월 18일 오전에 집결한 학생과 시민들은 도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항쟁하였다.

5·18 발생 이후 신군부는 이를 폭도들에 의한 사태로 규정하고 수년간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또 억압하였다.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이어졌고

1988년 5·18 국회 청문회를 통해 온 국민이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다. 1997년 4월에는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5·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당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확대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세계기록유산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등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 1월에는 "5·18 역사와 국耻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희생과 피해에 관한 규명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42년 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중 항쟁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력하고 결정적인 민주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류작가 펄 벅은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42년 전, 어제,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꽃피운 선배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또 소중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오월의 열과 정신을 계승하여 시대의 빛으로 확산되어 미래로 나아가자.

서 석 대

## 인간관계에 지쳤다면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지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일명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학번이지만 어느덧 대학에서는 3학년으로 고학번 취급을 받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곳 대학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롭고 새로운 경험들이 많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이전 학번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그간 참여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MT 등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각종 행사가 재개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나는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들이 전부

였기에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학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만나는 곳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학생회나 동아리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해 행동해야 한다.

타인을 만나고 관계 맺음에 있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뿐더러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다.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가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이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대사 중 한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에 실패한다면 지치고 외로워진다. 때로는 이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힘들어지기도 한다.

인간관계 형성에 힘들고 너무 지칠 땐 잠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고 지치는 인간관계를 묵혀두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타

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거치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로 정착할 수 있다.

대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요즘, 인간관계에 지쳤다면 잠시 혼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관계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로즈가든  
2022 ROSE WEEK

2022년 5월 19일 (목)  
- 5월 22일 (일)  
조선대학교 장미원

# 장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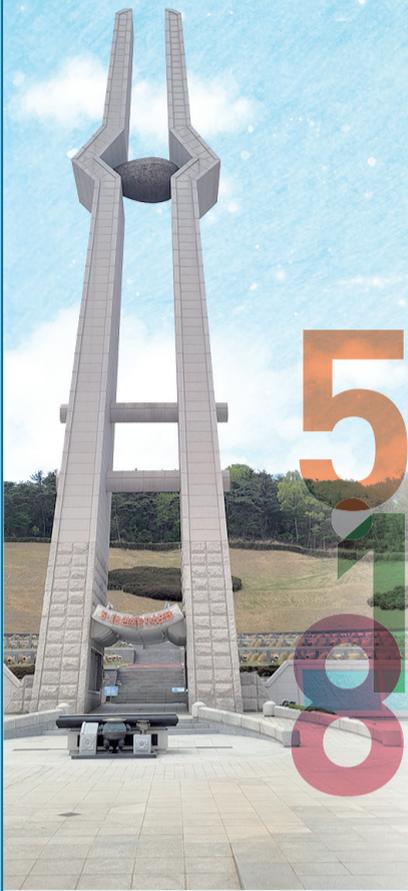
**문의** 062-230-6235, 6197

**함께**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장미의거리상인회



# '5월의 광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5·18 그 후 42년, 여전히 광주는 잊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많을뿐더러 그들을 위한 비침은 끊이지 않는다.  
그 당시 오월정신을 상징했던 인물들을 찾아 조대신문 기자들이 이야기를 전한다.



## 윤상원 열사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1980년 5월 26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진압을 앞두고 윤상원 열사가 한 말이다. 윤상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끝까지 싸운 시민군은 끝내 산화되었지만 1987년 군부독재 시대를 끝내는 밑거름이 됐다.

윤상원의 불에 그을린 주검 사진이 세상에 공개돼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는 가까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은 새까맣게 타버리는 역사의 피뢰침이 됐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사적지에는 역사적



▲윤상원 열사 생가

증거가 버젓이 살아있다. 전일빌딩 건물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히 표시 돼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에 있는 윤상원 생가도 존재한다. 마지막까지 윤상원 열

사가 항쟁하며 산화됐던 옛 전남도청 일대 또한 둘러보며 5·18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시민들은 폭도, 빨갱이 등 누명을 받으며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 5·18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하늘 수습기자

jeongsky1109@naver.com

## 박관현 열사

박관현은 신군부의 반인권적 폭력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민주열사다.

전남대는 그의 치열한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9년 법대 앞에 혁명정신 계승비를 세우고, 지난 2020년 '박관현 언덕'을 조성했다.

박관현 열사의 희생이 주는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해 물결을 형상화해 언덕을 조성했으며,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자 자연석과 장대석을 사용했다.

박관현 언덕은 혁명 계승비와 돌로 된 조형물이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듯 조용히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신군부의 반인권적 폭력에 저항해주신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박관현 열사 계승비

김세진 수습기자

zlw0726@hanmail.net

## 석은 김용근 선생

독립유공자이자 5·18유공자인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식 교육활동, 총독암살단 조직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54년부터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했다. 1976년에는 유신반대 학생시위에 책임을 지고 교직을 사임했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는 지명수배 된 제자를 숨겨준 혐의로 투옥됐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5·18기념공원에 가면 김용근 선생의 흉상을 볼 수 있다. 김용근 선생의 흉상은 5·18기념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상을 지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가는 길쪽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5·18기념공원에는 김용근 선



▲석은 김용근 선생의 흉상

생의 흉상 외에도 곳곳에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5·18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방문하여 민주화의 희생을 돌아보며 추모하는 마음을 되새겨보자.

김아리 수습기자

ariya1120@naver.com

##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5월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달이다.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참상이 펼쳐진 그때의 광주를 최초로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워 주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갔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1980년에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이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겨 주셨기에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5·18 옛 묘역은 민주화를 위해 자결한 민족민주열사들을 볼 수 있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곳이었다. 또한 직접 국립 5·18민주묘지를



▲위르겐 힌츠페터

찾아오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참배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슬기 수습기자

dvjhgy@naver.com

## 윤공희 대주교

윤공희 대주교는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썼다. 그가 속해 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사람들이 계엄군을 피하도록 도왔다. 또한, 그는 5월 19일에 명동 서울대교구에 가서 계엄군의 만행을 알렸다.

당시 윤공희 대주교가 집무실에서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젊은이의 모습을 봤지만 두려워 실천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반성으로 끝내지 않고 5·18 이후 진상 규명에 적극 지원했다.

이런 윤공희 대주교의 이야기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6층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기록관이 조성되기 전 이곳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였다. 그 중 기록관 6층은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진실의 눈'이라는 주제로 전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

시 중이다. 그의 공간이 보존된 모습과 함께 은퇴 당시 반납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곳이 윤공희 대주교의 민주화운동을 느껴 볼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백어진 수습기자

uhjin0304@naver.com